

“어린이용 책 싸게 판다 봉고차로 유인

주부 7명 집단납치” 공포의 소문

89.3.23

부천·안양 치안허점·불안심리 겹쳐 순식간에 번져

최근 1주일 사이 경기도 부천·안양·안산·김포 등 서울 근교 주택가에서 대낮에 가정주부들이 집단납치되고 있다는 소문이 퍼져 주민들을 불안에 떨게 하고 있다. 이러한 소문들은 확실한 근거도 없이 주민들 사이에 입에서 입으로 빠른 속도로 퍼지고 있으나 경찰은 진상조사를 게을리하고 있어 주민들의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

부천시 괴안동 일대에는 지난 15일 유명출판사 직원을 자처한 50대 남자 등 일당 5명이 가정집을 방문, “판다 남은 어린이용 도서를 싼 값에 팔테니 봉고차에 나와 구경하라”고 가정주부들을 유인, 30대주부 7명이 차안에 들어가 책을 구경하는 사이 마취약을 뿌려 정신을 잃게 한 뒤 서울 쪽으로 달아나다 그 중 1명을 ‘얼굴이 못생겼다’는 이유로 길가에 버리고 나머지 6명을 납치해 사라졌다는 소문이 파다하지만 피해자 가족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주부 안윤희(30)씨는 “그날 오후 2시께 50대 남자가 자신에게도 다가와 책구경을 강권했으나 의모가 출판사직원 같지 않아 수상히 여겨 거절했다”고 밝혔다.

새벽 등교길의 여고생 3명이 봉고차 인신매매단에 납치됐다가 그중 한명이 탈출한 사실이 22일 밝혀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 신정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전 7시께 서울 양천구 신월5동 17-1 강서교육구청 앞길에서 학교로 가던 임아무개(17·여고 2년)양이 20대 청년 3명에 의해 납치돼 번호를 알 수 없는 회색봉고차에 태워져 인천 쪽으로 실려갔다는 것이다

안씨는 “50대 남자가 1백68cm 정도의 키에 대머리였으며 검정색 재킷의 양복을 입고 있었다”고 기억을 되살리며 불한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임양은 이들에게 끌려가다 오후 1시께 경인선 부평역 근처의 한 스탠드바 앞에서 범인 2명이 안으로 들어가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빠져나왔다는 것이다. 임양으로부터 당시의 상황을 전해 들은 모여고의 한 관계자에 따르면 임양이 봉고차에 강제로 태워졌을 때 차 안에는 역시 여고생으로 보이는 10대 소녀 2명이 가방을 든 채 타고 있었다는 것이다

안씨 외에도 이 일대 주택가와 시장 등지에는 문제의 50대 남자를 보았다는 가정주부가 많다. 지금까지 소문의 진상은 파악되지 않고 있지만 이 일대는 대낮

여고생 3명 봉고차 납치

양천구 신월동 새벽 등교길에...1명 탈출

27일 남북작가 예비회담

민족문학작가회의는 22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 작가동맹이 제의한 대로 오는 27일 오전 10시 판문점 중립국감독위원회 회의실에서 남북작가회의를 위한 예비접촉을 갖겠다고 밝혔다. 예비접촉에 참석할 대표단은 고은(시인), 신경림(시인), 백낙청(문학평론가), 현기영(소설가), 김지경(시인)씨 등 5명이다

에도 문을 걸어 잠그고 바깥출입을 삼가고 있는 실정이다.

관할 피안파출소에는 소문의 사실여부를 묻는 전화가 몇 통 걸려왔을 뿐 아직까지 정식신고는 접수되지 않고 있다. 치안본부와 부천시 관계자는 그런 일이 없다고 부인했다.

이밖에도 안양시 비산동과 김포군 고촌면 등 경기도 일대 다른 지역에도 비슷한 소문이 널리 퍼져있고 한국여성단체연합(회장 이우정)에도 몇 건의 신고가 접수돼 있다.

이런 현상은 소문의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최근 경찰이 시국치안에 치중하고 있는 가운데 민생치안에 허점을 드러내고 있는 분위기에서 여성들의 공포심리가 맞물린 ‘때론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김아무개(34·상업·경기도 부천시 괴안동 118)씨는 “당국이 소문의 진상을 빨리 밝혀 주민들을 안심시켜야 한다”고 말하고 “근본적인 민생치안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옥천 현금수송차량 강도

범인 1명 검거 3명 수배

【옥천=손규성 기자】충북 옥천경찰서는 21일 옥천군 안대면 정방리 동피고개에서 지난 1월17일 일어난 농협 현금 수송차량 강도 사건의 범인으로서 이명하(47·대전시 동구 삼성1동)씨를 붙잡아 범행 일체를 자백받고 특수절도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달아난 노영락(36·) 윤광준(34·대전시 중구 중촌동 315-10) 전 해교(38)씨 등 3명을 수배했다